



함께한 10년, 함께 그려갈 내일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10주년 기념식

지난 7월 30일, 구립동대문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10주년 기념식이 복지관 10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렸습니다.

2016년 문을 연 구립동대문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0년 동안 장애인과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복지관으로 성장해 왔는데요. 이번 기념식은 그동안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며 함께해 온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로운 10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동안복지재단과 동대문구청, 이용자,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함께해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기념식은 감사예배를 시작으로 기념영상 시청, 유공자 표창, 기념사와 축사, 비전 선포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유공자 표창에서는 오랜 시간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신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협력기관, 장기근속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비전 선포식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보통의 삶을 만들어가는 복지관'이라는 미션과 '비전2030!

스마트 복지 공동체 구현'이라는 비전을 다시 한번 함께 나누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 가까이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복지관이 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운 10년을 향해 나아가는 복지관의 앞날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관10주년 기념 연구보고서 발간

복지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동대문구 장애인·지역주민 욕구조사 및 서비스 발전방향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복지관

이용자와비용자,지역주민의 목소리를 통해 복지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복지관의 발전 방향을 고민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이번 연구는 동국대 김학주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아 연구를 진행했으며, 복지관 직원들이 직접 지역사회 곳곳을 찾아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조사에 함께했습니다.

보고서가 궁금하시거나 직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복지관으로 문의해 주세요.



◀영상 보러가기
복지관 개관 10주년 공동화▶
◀모두가 행복한 보통의 삶▶



“모두가 행복한 보통의 삶!”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10주년 기념 공동화

복지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그림 한 점이 완성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일상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가고 싶은 모습을 담은 개관 10주년 기념 공동화, 「모두가 행복한 보통의 삶」입니다.

그림 속에는 동대문구를 배경으로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배우고, 일하고, 운동하고, 여가를 즐기며 저마다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림 속 인물과 장면들은 지난 10년 동안 복지관이 펼쳐온 실제 사업과 그 시간을

함께해 온 사람들의 모습을 바탕으로 그려졌습니다.

이번 공동화의 시작은 예림사회적협동조합 소속 작가 두 분이 맡았습니다. 작가들은 복지관의 지난 사업 사진을 바탕으로 밑그림을 그렸고, 그 위에 복지관 이용자와 직원, 동대문구 관계자들이 함께 각자의 색을 더하며 하나의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의 색이 모여 하나의 그림이 완성된 것처럼, 복지관의 지난 10년도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관심이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보통의 삶」은 단순한 10주년 기념 작품을

넘어,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10년을 그려보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배우고, 일하고, 사람을 만나며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삶. 누구나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에서 자신다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삶.

지난 10년을 함께 만들어온 것처럼, 앞으로의 10년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보통의 삶’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한 약속

2026 ~ 2030 미션·비전

개관 10주년을 맞은 2026년, 우리 복지관은 새로운 내일을 향한 미션과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새로운 미션은 ‘모두가 행복한 보통의 삶을 만들어가는 복지관’, 비전은 ‘비전 2030! 스마트 복지 공동체 구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랑, 행복, 사람중심, 자립을 핵심가치로 삼아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길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새로운 미션과 비전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복지관의 발걸음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숫자로 보는 10년



10년

2016년 개관부터
2026년까지
함께 걸어온 시간



529,173명

복지관 이용자



1,791명

자원봉사자



761명

후원자



332개소

후원기업·단체



2016년

- 개관
- 제1회 흥인지문 바자회



2017년

-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24시간 장애인도움콜' 선정
- 에세이 출판사업 '편대'



2018년

- 성인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오동통대학'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무지도원 관리 민간위탁 기관 선정



2020년

- 동대문구 장애인 무료급식 '더드림식당' 운영

2023년

- 서울시복지재단, 2023년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잇다+' 협력기관 선정

2019년

- 동아ST, 동대문구약사회 '편평한 세상 만들기' 경사로 1호점 설치
-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 평화누리길 중주투어'



2024년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되는 다사랑 합창단 '멜로디'
- 동대문구 거북이 걷기 대회

복지관이 걸어온 10년

2021년

- 장애인 서포터즈 1기 '동그래'



2022년

- 한국장애인개발원, '성인권 교육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2025년

- AI 동트는 센터 개소
-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동동밥상'



2026년

개관 10주년

QR코드 스캔



함께한 10년,
함께 그려갈 내일

◀개관 10주년 기념영상 보러가기

배움에서 실천까지!

2026년 하계 사회복지현장실습

올여름, 복지관에서는 하계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진행하며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장애인복지현장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사회복지사로서 한 걸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사회복지사의 역할, 사람중심실천, 장애인식개선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키웠습니다.

특히 이용인을 어떤 시선과 태도로 만나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며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을 다졌습니다.

배운 내용을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여름계절학교에 함께 참여해 이용인들과 만나고 소통하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다.

실습 마지막 날에는 그동안의 배움과 경험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실습생들이 직접 신규 사업을 기획하고 발표하며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발전시켜보는 것으로 실습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여름의 경험이 실습생들이 앞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복지사로 성장해 나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클볼 수업을 받고 있는 참여자들.



▲성인 대상으로 진행된 골프 교실.

새로운 운동의 재미

생활체육교실 피클볼·골프

우리 복지관에서는 2026년 서울시 생활체육(교실형) 지원 사업으로 약 2개월간 피클볼과 골프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새로운 종목을 배우고 직접 즐기며 생활체육의 재미를 알아가는 시간이었는데요.

특히 '피클볼'이라는 이름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피클볼은 탁구채보다 큰 패들로 구멍이 뚫린 공을 주고받는 라켓 스포츠로, 테니스와 배드민턴, 탁구의 특징이 어우러진 운동입니다.

이번 피클볼 교실은 청소년 참여자들과 대한피클볼협회 피클볼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 2명과 함께했습니다. 패들을

잡는 그림과 기본 자세부터 공을 주고받는 방법을 차근차근 익히고, 실전 경기까지 진행하며 피클볼의 재미를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또한 성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골프 교실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PGTCA 프로 지도자의 지도 아래 골프채를 잡는 그림부터 기본 자세와 스윙을 익히고, 미니게임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골프를 즐겨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관은 장애인이 다양한 생활체육을 경험하고 일상에서 운동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편집자의 말 I

이번 달의 주제는 '내일'입니다.

내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했고, 지금 어디에서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웹진에는 개관 10주년을 맞아 우리 복지관이 걸은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모습을 생각해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복지관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복지관도 함께 변화하고 성장해왔습니다. 이번 웹진에서는 그 발자취를 살펴보고, 10주년 기념식과 공동화를 통해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10년의 의미를

되새겨보았습니다.

수많은 만남과 순간이 쌓여 복지관의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바탕으로 또 다른 내일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10년 뒤의 복지관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 하루하루 함께하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모습의 복지관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웹진을 통해 지난 시간을 함께 돌아보며,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내일'을 함께 그려보셨으면 합니다.

김동현 사회복지사